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1년 7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6번 “사랑의 송가” 1절을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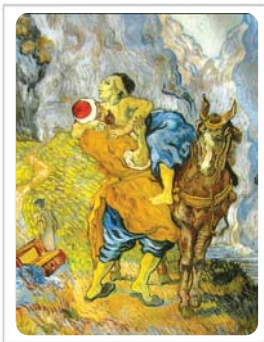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저희가 마음으로 깨닫게 하소서.
- 우리와 함께 있기를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당신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해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때는

-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자비를 베풀으로써 내가 받은 복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그것에 대해 서로 얘기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자비의 성질은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는 걸세.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와 아랫 것들을 적시는 보슬비 같아서
이중으로 복을 내리는데
베푸는 자에게도 복을 주고, 받는 자에게도 복을 주지.
그것은 힘센 것들 가운데 가장 힘센 것이요,
왕위에 오른 군주를 그가 쓴 왕관보다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네.
군주의 홀(笏)은 잠정적인 권력을 보여주는
위엄과 경외의 속성(attribute)으로서
그 안에는 왕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자비는 군주 손에 들린 홀(笏)보다 높이
왕들의 가슴에 보좌를 틀고 앉아 있는
하느님, 바로 그분의 속성(屬性)이라네.
그래서 자비가 정의와 어우러질 때
지상의 권력은 하느님의 그것처럼 보이게 마련이지.

—윌리엄 셰익스피어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푸는 것” 1, 2절을 부릅시다.

궁금
했어요

대 송 (代誦)

주일이나 교회법에 정한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 드리는 기도를 말한다. 박해시대 때, 한국 교회에서는 사제를 만나거나 공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는 대송으로 주일과 축일의 의무를 대신하여야 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후에도 사제의 수가 부족하고, 공소에 사는 신자들이 많아서 대송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

대송방법은 《천주 성교 공과》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일과 축일에 공통되는 기도문과 각 주일 및 축일에 해당하는 기도문을 외우거나, 만일 책이 없거나 글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바쳐야 했다. 또 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주님의 기도를 33번씩 두 번과 묵주기도 15단을 바쳐야 했고, 만일 이를 모르면 성모송을 33번씩 세 번, 즉 99번을 해야 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려면 성경을 읽고 필요한 교리를 배워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권고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1923년에 발표된 《회장직분》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지만, 묵주기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완화되었다. 이후 사제의 수와 본당의 수가 많아지면서 《천주 성교 공과》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바치도록 하였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 십자가의 길을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주님의 기도를 33번

외우도록 하였다. 이 규정이 계속 지켜져 오다가 1995년 발표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서는 대송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마을을 지키는 오래된 나무

-경화동본당 1구역 6반-

길어진 해를 따라 골목길을 돌고 돌아 다다른 경화동성당. 작고 소박한 성당 마당에 들어서자 뛰놀고 있던 아이들이 화단에 심겨진 꽃들보다 더 환한 표정으로 반겨줍니다. 기다리고 계시던 구역분과장님께서 경화동본당 1구역 6반 레이먼드 형제님 댁에서 열리는 소공동체 모임으로 안내해주셨지요. 소공동체 봉사자 연수에 워낙 열심히 참석하신 덕분인지 구역분과장님도, 소공동체 반장님도 모두 낯설지 않은 정겨울 얼굴들이었습니다.

1구역 6반에 성가대원만 다섯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 지나가는 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거실을 가득 채우는 우렁찬 시작성가로 모임이 시작되었고, 낯선 객으로 하여 불편함이 있으셨을 법도 한데 허욕이 쯤마나 반장님께서서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모임을 이끌어 나가 주셨습니다. 서로 미루기보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시고,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깊이 경청해주셨지요. 말씀 나눔 후에 이어진 본당 공지사항 시간. 본당 내 쓰레기 분리수거 협조에 대한 당부와 구역 내 예비신자와 첫영성체 교리반 어린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며 수첩에 적혀 있는 것을 놓칠세라 꼼꼼히 챙겨주시는 모습에서 우리 집 살림을 돌보는 듯한 살뜰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1구역 6반만의 특징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쭙었더니 너나 할 것 없이 ‘단결력’이라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구역 내 반원 15~20명 가운

데 빠지시는 분이 거의 없고 소공동체 모임은 물론 본당 행사 때에도 단합된 힘으로 뭉칠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 전 다른 본당에서 전입해 오셨다는 루카 형제님께서 “지난 번 본당에서는 모임을 하는 때에는 하고, 어떤 시기에는 모임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에 와서 참 좋은 것이 모임을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점입니다.” 하고 한 마디 더 거드셨지요.

또 하나의 특징은 젊은 분에서부터 연세 지긋하신 분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신자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인 아녜스 자매님께서는 어르신들께서 본당 장기자랑이나 연도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또 매일 미사에도 참례하시는 등 신앙인으로서의 본보기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모임 내내 별다른 말씀 없이 인자한 얼굴로 앉아 계시던 그레고리오 할아버지께 한 마디 여쭙었더니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 참 많았는데, 나이를 입으로 먹어 그런가 입이 무거워졌다.” 하며 “아외활동을 가게 되면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늘 나서서 해주고, 늘 아버님- 어머님- 하며 챙겨주고 고마울 때가 참 많지요.”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살갑게 다가와 먼저 챙겨주고 힘든 일 앞장서는 젊은이들, 앞에 나서기보다 기도하시며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어르신들. 그렇게 함께 하시는 1구역 6반의 모임에 함께 하다 보니 마을을 지키는



〈경화동본당 1구역 6반 반원들〉

오래된 나무의 지나 온 세월과 살아갈 날들의 이야기를 들은 듯 마음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더 너르게 품어 줄 1구역 6반의 그들 아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하느님 말씀과 사랑을 나누며 지내시길 기도드립니다.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